

## 일본기업의 설비투자 행동에 변화 조짐

내각부가 최신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기업은 설비투자 총액증대, 생산능력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인 반면, 향후 환경·에너지 절약을 축으로 한 연구개발과 신사업·해외 진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일본기업의 투자내용이 환경투자와 해외투자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내각부는 최근( '09.12~ '10.2)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과거 3년간과 향후 3년간의 설비투자 목적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거 3년간(2007~2009)은 '생산(판매) 능력의 확대'를 중시하는 기업이 51.5%로 가장 많았으나, 향후 3년간(2010~2012)에는 이 비율이 41.5%로 격감. 이는 설비과잉감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
  - 향후 3년간 가장 중시되는 항목으로 '유지·보수' (48.5%)가 지목됐으나, 과거 3년간의 48.2%에 비해 소폭 증가함.
  - 대신에 '환경투자(7.3%→13.8%)', '에너지절약(4.4%→8.5%)', '해외투자(13.4%→14.4%)', '연구개발(18.3%→20.1%)', '신사업 진출(11.4%→17.4%)' 등을 중시하는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짐.

표 1. 설비투자의 목적(중요도가 높은 항목)

항목	과거 3년간 투자목적	향후 3년간 투자목적
생산(판매)능력 확대	57.1	41.5
상품·서비스의 질적 향상	30.9	30.8
정보화예의 대응	26.7	24.1
설비자동화	34.1	32.7
환경대책	7.3	13.8
에너지절약(연료비·광열비 감축)	4.4	8.5
해외투자	13.4	14.4
연구개발	18.3	20.1
신사업 진출	11.4	17.4
유지·보수	48.2	48.5
기타	4.1	2.7
설비투자의 예정이 없다.	1.9	2.5

자료: みずほ総合研究所(2010.5). 「設備投資行動に変化の兆し」. 『みずほリサーチ May 2010』.

## □ 일본기업의 설비투자행동 변화의 배경

### ○ 첫째, 세계적인 환경의식 고양

- 금융위기 이전에도 원유 등 자원가격의 급등에 따라 환경·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음.
-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기대책에 환경·에너지절약 사업이 포함됨.

\* 일본은 경기대책에 에코카 보조금, 에코포인트 제도, 태양광발전 지원 등을 포함. 그 결과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가 급증하는 등 소비행동에도 변화가 발생. 또한 하토야마 총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하는 지구온난화대책을 제시

\* 이에 따라 일본기업은 환경배려형 및 에너지절약형 제품·서비스 개발 및 생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

○ 둘째, 신흥국 수요 확대에의 대응 강화

- 선진국은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당분간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존재감이 부상함.
- 중국, 브라질, 인도 등에서 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셋째, 내수 부진이 신사업 진출을 촉진

- 내각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수요의 성장기대가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특히 건설업의 향후 3년간 기대성장률은 -2.3%, 소매업은 -0.6%로 예상됨.
- 이러한 업종은 해외진출 이외에 신사업에의 진출에도 적극적인데,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건설업의 타업종 진출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음.

□ 향후 일본기업은 환경·에너지절약을 키워드(key word)로 한 연구개발과 신사업진출을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전망

- 일본기업은 설비투자의 총액 증대, 생산능력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향후 자사의 환경·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이 부문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신사업 및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みずほ総合研究所(2010.5). 「設備投資行動に変化の兆し」. 『みずほリサーチ May 2010』.  
内閣府(2010.2 및 2010.5). 「平成21年度企業行動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報告書」.